



Morning Calm December 2015
Korea Airlines Inflight Magazine
by Mark Eveleigh, an internationally renowned travel photojournalist



말레이시아 죽순 문양 푸죽 레봉

풍요로운 열대의 대지에서 솟아난 죽순은 강렬하고도 탄력적인 몸짓으로 태양빛을 향해 쭉쭉 자라난다. 이 매혹적인 움직임과 강한 기상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국민성과 일치한다. 그래서일까. 죽순은 말레이시아의 아이콘이 되었다.

GIFT OF THE GODS

A slender shoot springs from the rich tropical ground and, deceptively strong and resilient, races toward the sunlight. This could be the way that Malaysians see their country, and it is fitting that the bamboo shoot has become the archetypal Malaysian icon.



푸죽 레봉 무늬는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마치 자연 상태의 죽순처럼 예전부터 늘 있었던 것 같다. 헨리 봉은 금실로 화려한 문양을 수놓은 150년 된 말레이시아 전통 옷감인 금박 비단 천 ‘송켓’의 죽순 문양을 보여주며 푸죽 레봉 무늬의 꼭대기 부분에 자리한 꽃무늬를 가리켰다. 그는 “이건 왕가의 양산을 의미한다”며 “이걸 보면 왕족을 위해 짠 옷감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송켓은 현지에서 ‘원단의 여왕’으로 알려졌으며 한때는 왕족만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말레이 남성들이 입을 사롱의 일종인 ‘삼핑’에 종종 사용될 만큼 대중적으로 쓰인다. 여기에 쓰인 핵심 문양이 바로 유구한 역사의 푸죽 레봉이다. 우아한 삼각형 모양의 죽순 문양은 벌리거나 다문 이빨 모양으로 서로 끝을 마주하고 있어, 오늘날 동남아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롱의 상징적인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룬다. 보통 푸죽 레봉 무늬는 사롱의 머리 부위인 ‘크팔라’에 들어가며, 몸통 부위인 ‘바단’의 양쪽 부분에는 다른 무늬가 들어간다.

“바단의 한쪽 부분을 먼저 찌는데 이는 죽순 문양의 뾰족한 부분에서 뿔어져 나온다고 믿는 어떤 ‘힘’으로부터 길쌈꾼을 보호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런 송켓 하나 찌는 데 길게는 일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헨리 봉의 말이다.



죽순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푸죽 레봉 무늬는 말레이시아의 직물 패턴(왼쪽 페이지)이나 장신구(아래) 전반에 두루 쓰인다. 쿠알라룸푸르의 ‘카스투리워크’는 기념품을 사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다(오른쪽 위).

The *pucuk rebung* motif, a symbol of bamboo shoots, is commonly found on Malaysian textiles, art and jewelry (below), including this piece displayed by Henry Bong (opposite). Kuala Lumpur’s Kasturi Walk is an excellent place to shop for souvenirs (above right).

고대 아시아 열대우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대나무가 신이 내리는 선물이라 믿었다. 빨리 자라는 식물로 알려진 대나무는 초기 인류에게 자양분과 주거지 및 안전을 제공해주었으니까. 말레이시아 밀림의 초기 수렵인과 채집인에게도 갖 돌아난 죽순은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밀림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약속이었을 터이다.

말레이 반도 북동부 켈란탄 주의 치안관사인 헨리 봉은 “푸죽 레봉은 아마 말레이시아를 상징하는 아이콘 중 가장 인상적이면서 강렬할 것”이라며 수많은 옷감과 예술품을 수놓은 이 우아한 삼각형 문양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말레이어로 푸죽 레봉은 그냥 ‘죽순’이라는 의미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탄력성, 힘, 자양분 및 내구력을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헨리 봉은 아홉 살 때부터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예품을 수집해 소장해오고 있다. 거의 20년 전 그는 잘나가던 은행가로서의 직업을 포기하고 쿠알라룸푸르의 신흥 변화가인 방사르에 푸죽 레봉 왕립미술관을 세웠다. 이후 그는 왕실의 후원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지금은 자신의 소장품을 활용해 말레이 지역을 위한 박물관 설립에 힘을 쏟고 있다.

Bamboo was considered a gift of the gods by the ancient inhabitants of Asian rainforests. As the fastest-growing plant known to man, bamboo provided food, shelter and security. To the earliest hunter-gatherers in Malaysian jungles, the sprouting bamboo shoot was a promise that, while life might be hard, the jungle would provide for all their needs.

“As a motif, *pucuk rebung* is perhaps Malaysia’s most powerful defining icon,” says Henry Bong, a justice of the peace in the state of Kelantan, referring to the elegant triangles that adorn so many Malaysian textiles and works of art. “In Malay, the name means simply ‘bamboo shoot,’ but it is best described as an emblem of resilience, strength, sustenance and durability.”

Since he was 9 years old, Bong has steadily been amassing one of the finest collections of Malaysian artifacts in the entire country. Almost 20 years ago, he abandoned a successful career as a banker to establish the Pucuk Rebung Royal Gallery-Museum, in Kuala



Lumpur’s hip Bangsar district. He has since set up exhibitions under royal patronage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and is in the process of starting a full-fledged museum dedicated to the Malay world.

The collection includes more than 5,000 precious textiles, and I can make out the bamboo-shoot emblem on several among the small selection laid out on the table in front of us. The pucuk rebung motif is so ancient that nobody knows when it was first used. It is simply as if — like bamboo itself — it has always been here. Bong shows me the classic motif on a 150-year-old *songket* textile and points to a strange bloom at the top of the pucuk rebung cone: “It signifies a royal parasol,” he explains, “and it tells us that this piece could only have been woven for royalty.”

Songket was known as the queen of fabrics. While once reserved for royalty, it is now worn by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with most Malay men owning at least one *samping* (male sarong) for ceremonial occasions. And more often than not, the central motif is the pucuk rebung.



푸죽 레봉 무늬는 직물뿐만 아니라 가정용품이나 빈랑나무 열매를 담은 함(왼쪽) 같은 고풍스러운 골동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The pucuk rebung motif can be found not only on textiles, but also on household objects and antiques such as betel-nut sets (left).

꾸준한 성장세 지난 수세기 동안 이 문양은, 마치 대나무처럼 탄력적이고 끈기 있게 아시아 지역 곳곳에 널리 퍼졌다. 헨리 봉은 “이 옷감은 인도 구자라트 주의 대표 교역 상품이었다”며 아름다운 ‘이캇 파톨라’ 하나를 펼쳐 보였다. 옷감 양 끝 패널이 동남아 예술가들의 영향을 받은 푸죽 레봉으로 장식돼 있으면서도 몸통 부분은 꽃이나 기하학적 디자인으로 덮여 있는데, 이는 인도나 중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거대한 무역로 곳곳의 문화가 고루 반영된 이 제품은 말레이 열도 전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최고급 옷감 대접을 받았다.

말레이 반도의 죽순 문양은 멀리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보르네오 섬에서도 강력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보르네오 섬의 이반족 사람들이 신성한 의식에 사용하는 ‘푸아 쿵부’라 부르는 직물을 짤 때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강력한 신령으로부터 길쌈꾼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의 일환으로 푸죽 레봉 무늬를 누비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말레이계 중국인도 이 무늬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편인데, 푸죽 레봉의 뾰족한 부분은 풍수에 어긋나게 머리 쪽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요즘은 이 무늬가 다름 톰 아방 사우피 같은 현지 패션계 거물의 작품이나 라자 아자르 이드리스의 유리 공예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를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높이가 310미터에 이르는 메나라 텔레콤 타워다. 헨리 봉 치안관은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과 말레이의 혼합 문화이자 인종을 일컫는 ‘프라나칸’이라고 소개하며 오랜 시간의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말레이시아는 과도기의 국가입니다. 계속 진화하는 중이죠. 오늘날 푸죽 레봉은 모두를 통합시키는 무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죽순 문양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집단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죠.”

글 사진 마크 에벨리

STEADY GROWTH Often the elegant triangles of the bamboo shoots are situated point-to-point in the manner of parted or clenched teeth (*gigi gergasi*), resulting in the diamond formations that are now found on sarongs in markets all over Southeast Asia. The pucuk rebung motif is almost always on what is known as the *kepala* (head) of the sarong, while the two sections of the *badan* (body) stretch on either side, bearing a secondary motif.

There is an important reason for this. “A weaver will weave one part of the *badan* first,” Bong explains. “This section will act as a barrier to protect the weaver from the power of the bamboo sprouts. After all, it might take as long as a year to weave a fine songket, and the power of those spear-like shoots is said to be dangerous.”

Over the centuries, the icon spread across much of Asia with the same resilience and durability as bamboo. “This double ikat patola was produced as trade goods in Gujarat, India,” says Bong as he unfolds a fascinating textile that encapsulates the cross-cultural importance of a trade route that ran halfway around the world.

While the two end panels are decorated with pucuk rebung, inspired by artists in Southeast Asia, the body is covered in floral and geometric designs, from the Indian subcontinent and the Middle East. The finished product — an amalgamation of the entire trade route — would have arrived at an ancient port like Melaka as a prestigious textile, sought after throughout the Malay Archipelago.

These days, while the motif is sometimes found in the creations of local fashion moguls such as Datuk Tom Abang Saufi, it is most easily spotted in Kuala Lumpur in the form of the 310m Menara Telekom Tower. “I’m Peranakan” — a cultural mix of Chinese and Malay — “and I grew up in Sarawak,” Henry Bong says with a smile. “We’re a nation in transition — in evolution. Even today, pucuk rebung is a motif that unifies everyone. It is part of our collective identity.”

Text and photographs by Mark Eveleigh

쿠알라룸푸르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 방크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는 지구상에서 5성급 호텔의 가성비(價性比)가 최고인 도시로 꼽힌다. 이 통계에 따르면 런던 거주자가 5성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려 한다면 런던의 호텔에서 묵는 것보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쿠알라룸푸르의 호텔에서 묵는 것이 더 싸다고 할 정도다. 쿠알라룸푸르의 교통도 가성비가 좋다. 택시 요금도 저렴한 편이고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도 편리하다.

추천 숙박지

만다린 오리엔탈(www.mandarinoriental.com) 호텔은 호화 쇼핑몰인

수리아 KLCC 바로 옆에 있으며, 널찍한 객실을 제공한다. 빌라 사마디(www.villasamadhi.com.my)는 소박한 듯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휴양 시설로 명성이 높다. 객실 21개를 갖춘 이 부티크 호텔은 주요 관광지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으며, 평화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5성급 숙박을 제공한다. 각 객실은 넓은 욕조와 발코니를 갖추고 있다.

추천 레스토랑

‘하늘에서의 식사’라는 콘셉트로 운영 중인 트로이카 스카이 다이닝(www.troikaskydining.com)에서는 세 곳의 훌륭한 레스토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데, 푸에고, 스트라토,

칸탈루프 레스토랑 모두 페트로나스 타워를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위치한 타마린드 스프링스(www.tamarindrestaurants.com)는 도심지를 벗어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이국적이고 느긋한 분위기에 인도차이나 각지의 메뉴로 구성된 음식이 제공된다. 길거리 음식도 무척 다양하고 가격도 싸다. 질란알로르 야시장의 노점에서는 놀랄 만큼 다양한 아시아 음식을 고루 맛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예술

헨리 봉이 설립한 푸죽 레봉 왕립미술관은 켈란탄 주(州)

공주를 통해 왕실의 후원을 받는 곳으로 아시아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둘러봐야 할 곳이다. 국립섬유박물관(www.muziumtekstilnegara.gov.my)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무료 입장이다. 중앙 시장인 파사르 세니에서 파는 여행 기념품 중에는 흥미로운 골동품도 많지만, 쇼핑의 참맛을 느껴보려면 시장 뒤편 아네스 빌딩에 위치한 민족 예술 아트 하우스 갤러리 박물관으로 가볼 것. 얼핏 보면, 말레이시아 수공예개발공사(www.kraftangan.gov.my)가 기념품 상점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뒷문으로 나가면 자그마한 박물관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쿠알라룸푸르로 매일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Kuala Lumpur daily.

KUALA LUMPUR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by Deutsche Bank, Kuala Lumpur (KL) has the best value of any city on the planet for five-star accommodation. The statistics show that if a Londoner fancied a night in a five-star hotel, it would actually be cheaper to fly halfway around the world to stay in the Malaysian capital for the night than to stay in London. Transport around the city is also cheap, with inexpensive taxis (haggling is now illegal in KL's taxis) and a convenient public transit system, which includes bus, monorail and light-rapid-transit lines (www.myrapid.com.my).

WHERE TO STAY

Mandarin Oriental (www.mandarinoriental.com) is located just next to the luxurious Suria KLCC mall and Petronas Twin Towers and offers spacious B&B rooms. Villa Samadhi (www.villasamadhi.com.my) is described as a "rustic-luxe" retreat and is one of KL's best-kept secrets. The 21-room boutique hotel offers five-star accommodation in a peaceful, upscale neighborhood that is just 10 minutes from the main sights. The rooms are individually designed and furnished, and most boast oversize plunge pools and private balconies.

WHERE TO EAT

Troika Sky Dining (www.troikaskydining.com) offers you a choice of three wonderful restaurants — Fuego, Strato and Cantaloupe — and a wine bar. Tamarind Springs (www.tamarindrestaurants.com), idyllically located in a pristine rainforest just 15 minutes from downtown KL, is the perfect escape from the city. The atmosphere is relaxing, and the fare — from all over Indochina — is wonderfully prepared and presented. Street food is varied, delicious and inexpensive. Try the amazing variety of Asian food at Jalan Alor night market.

MALAYSIAN ART

Henry Bong's Pucuk Rebung Royal Gallery-Museum recently acquired royal patronage through the Princess of Kelantan and is an essential stop for anyone interested in Asian art. The National Textile Museum (www.muziumtekstilnegara.gov.my) is open daily from 9am to 6pm, and admission is free. There are some interesting antiques for sale among the tourist souvenirs in Pasar Seni (Central Market), but for a truly fascinating shopping experience, head to the Art House Gallery Museum of Ethnic Arts in the annex at the back of the market.